5면에서 계속

었다. 또한 이학과 공부에 대해 논하는 그 설에 돈오頓悟(수행을 거치지 않고 문득 깨달아 앎)의 요지가 많았다. 이에 내가 답하기를‘ 이는 바로 석시釋氏(석가모니)의 파요 중니仲尼(공자)의 도徒는 말하지 않는 바이니 내가 배우지 못하였소 ’하니 도춘이 책을 얻어 가지고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신의 말씀이 내게는 약석藥石인데 우리나라 학문이 모두 선禪에서 나와서 이와 같은 우환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결같이 공씨孔氏의 학문으로 귀의코자 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수습修習해야 합니까 ’ 하였다. 내가 답하기를‘ 그 공부가 올라가 다다르면 비로소 격물치지格物致知가 되어 성의정심誠意正心을 이루어 평천하平天下에 이르고 그 윤리倫理는 부자유친父子有親에서 붕우유신朋友有信에 이르며 그 제도는 관혼상제冠婚喪祭가 되고 그 문교文敎는 시서역춘추詩書易春秋이니 성인의 도학道學이 모두 방책方冊(서적)에 있은즉 귀의하여 구해 보면 거기에서 스스로 스승을 얻게 될 것이오 ’하였다. 도춘이 기뻐하며‘ 공경하여 명을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제官制를 고치고 복색服色을 바꾸고자 하오니 원컨대 귀국의 제도와 중조中朝의 관제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면서 한당漢唐과 남북조南北朝 및 금원金元·대명大明의 관제를 들어 논란을 봉기蜂起시키고 오로지 변박辨博하며 스스로 잘난 체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천과 풍속·물산物産을 열거해 써서 묻는데 누루히 하여 마지 않더니 또한‘ 양응방養鷹方 을 가지과 와 물었는데 이는 곧 우리나라 성산星山 이조년李兆年이 지은 것이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대 때문에 이상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와 개를 묻는 것인가요 ’ 하니 도춘이 사례하며‘ 바다에 있는 나라에서 생장하여 군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그러면서 금일 안개가 걷히고 푸른 하늘을 보게 되면 나의 헌호軒號와 연세·관직·등과일월登科日月·거주居住 및 본관本貫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에 권칙權侙으로하여금답해주게하였다.

十二月十八日戊子

晴. 朝飯後發行 只洪喜男 姜渭濱 李長生 權侙 李浣 李惟洞 趙廷命 鄭漢驥 尹涯 尹愛信 朴之永等陪行 其餘軍官及 典樂馬上才等 以關白將爲觀光 故幷留江戶. 中火于越箇谷土方彦三郎宮城主膳等 來管支供 皆武藏州所屬 而關倉入之地 故兩處支供亦自江戶出來. 自江戶抵越箇谷三十里自越箇谷抵糖壁三十里.

12월 18일 무자. 맑음. 조반후에 발행하였는데 다만 홍희남·강위빈·이장생·권칙·이완·이유형·조정명·정한기·윤애·윤애신·박지영 등만 배행하고 그 나머지 군관과 전악典樂 및 마상재馬上才(달리는 말에서 묘기를 부리는 재주꾼) 등은 관백이 그 시연을 관람한다 하여 모두 강호에 체류하였다. 점심은 월개곡越箇谷에서 하였는데 토방언삼랑土方彦三郎과 궁성宮城의 주선主膳(주방장) 등이 와서 공궤供饋하는 것을 관장하였고 다 무장주武藏州 소속으로서 관백의 창고에 들어오는 지역인지라 두 곳에서 공궤해내는 것이 또한 강호에서 나오는 바였다. 강호에서 월개곡은 30리이고 월개곡에서 당벽糖壁이 30리였다.

丁丑正月十八日戊午

晴. 留倭京本國寺 朝義成送右馬助章邯等 致謝昨日送書委存之意 而仍略及投金一節 其爲巧詐不可說也. 夕醫賢治求見辭以疾副使從事獨出接. 大福寺僧壽仙長老稱名者 乃明年句管馬島文書者也 不得不接見 所稱贐行硯具 卽給行中學官權式 卽辭不獲已故也. 周防守處 使洪喜男傳致禮曹書契及別幅.

정축년丁丑年(인조 15, 1637년) 1월 18일 무오. 맑음. 왜의 서울 본국사本國寺에서 머물렀는데 아침에 의성義成이 우마조右馬助와 장감章邯 등을 보내 어제 글을 보내 위문한 뜻에 사례하고 이어 금을 한번 던져준 절목에 대해 대략 언급했는데 그 교사巧詐함을 무어라 말할 수 없었다. 저녁에 의원 현치賢治가 뵙기를 청했으나 병으로 사양하고 부사副使와 종사관從事官이 나가 접견했다. 대복사大福寺의 중으로 수선장로壽仙長老라 하는 자는 곧 명년에 대마도의 문서를 구관句管할 자인지라 부득이 접견했는데 이른바 신행연구贐行硯具(떠나는 이에게 선사하는 벼루 등속)라는 것을 일행중의 학관學官 권칙權侙에게 바로 지급하였다. 곧 사양했으나 부득이하여 받은 바였다. (일본의) 주방수처周防守處에 홍희남을 시켜 예조禮曹의 서계書契와 별폭別幅(외교문서에 덧붙이는 예물 목록과 물품)을 전하게 하였다.

일본 사행에서 돌아온이듬해가 되는 인조 16년, 1638년 무인에는 국헌공이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나가 변관邊關을 수호하는 임경업林慶業의 수하에 있는 것으로 실록에 올라 있다. 이때 공의 직책이 무엇이었던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판관判官이나 종사관從事官으로 그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전자에 오도원수 강홍립의 휘하로 만주에 종군한 바 있으므로 공이 북변의 사정에 밝아 발탁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조 16년, 1638년 4월 19일자 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나온다.

義州府尹林慶業 馳啓曰 臣使權侙及譯官 往見都司則曰 陳都督方在石城島 此書之受不受 而貴國之向背 決矣. 答曰 非有朝廷命令 決難受去 都司曰 皇上別遣勅使道爺邵起 已到石城島 先使俺來通矣.侙曰我王至誠事大之心 炳如日星 而世子被拘於虜 虜之恐嚇滋甚 大人亦可諒此情勢也. 都司曰 天朝之於貴國有父子之義 安有子而背父之理哉. 貴國君臣 由海路入來 則船隻粮資 可以接濟. 侙答曰 與天朝相通 則虜必更來衝突 而父母之國遠隔滄溟孰能制其憑陵哉. 都司曰 天朝已請倭兵 不久當來蕩平此虜之後 使貴國君臣 復還故國且曰 文書之受不受 而勅使之來不來 係焉 必得的報 然後當入去 姑爲退舡於虜人不見處留待爲計 仍出潞州紬二端曰 此則都督謝副摠効忠之書 親自跪置岸上而去. 漢人之言自來虛誕不可取信 而目今淸人 在於越邊候望漢舡來往 以此以彼 事勢難便 請令廟堂 指授其答通措語. 備局回啓曰 今見權侙等問答狀啓 所言與前無異 而但林慶業既受其書 不可全無所答 若令慶業 密往相見 仍給禮單 以致謝意 因陳悶迫之情 且言其初不許助兵之由 以明本國事情 則或可以小慰都督之心. 答曰淸人今方西犯 故都督爲此拙謀 以爲掣後之計 以子揆之 此別無他情也 然林慶業往見 或似無妨 依啓辭施行.

의주부윤 임경업이 치계致啓하기를 “ 신이 권칙과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도사都司(명군의 사령부)에 가서 만나보게 하였는데 도사에서 말하기를‘ 진도독陳都督이 지금 석성도石城島에 있는데 이 문서를 받고 안받고에 따라 귀국의 향배가 결정된다 ’하였습니다. 이에 답하기를‘ 조정朝廷(명나라 정부)의 명령이 아니고는 결코 받아가기가 어렵다 ’ 하니 도사에서‘ 황상께서 특별히 보내신 칙사勅使 도소기道邵起가 이미 석성도에 도착해 있고 먼저 나를 시켜 통보케 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칙侙이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지성으로 대국을 섬기는 마음이 해와 별처럼 밝지만 세자가 오랑캐에게 구류되어 있어 오랑캐의 공갈이 매우 심하니 대인大人께서도 이러한 정세를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니 도사에서는‘ 천자의 조정과 귀국은 부자父子의 의리가 있는데 어찌 자식이 부모를 등지는 도리가 있겠는가. 귀국의 임금과 신하가 바닷길로 들어온다면 선척船隻과 식량을 건네줄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칙이 답하기를‘ 천자의 조정과 서로 통하면 오랑캐가 반드시 다시 충돌해 올 것인데 부모의 나라는 멀리 푸르고 끝없는 바다에 격해 있으니 뉘라서 그 힘을 믿고 처들어오는 것을 제어하겠습니까 ’ 하였더니 도사에서 말하기를‘ 천자의 조정에서 이미 왜국倭國에 군사를 요청하였으니 오래지 않아 틀림없이 올 것이다. 이 오랑캐를 탕평한 뒤에 귀국의 임금과 신하도 다시 고국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 하면서 또‘ 문서를 받고 안받고에 칙사가 오고 안오고가 달려 있다. 반드시 적확한 회보를 얻은 뒤에라야 들어가겠다. 잠시 오랑캐가 보지 않는 곳에 배를 물려 두고 머물러 기다릴 계획이다 ’ 하고는 인하여 노주潞州의 비단 2단端을 내놓으면서‘ 이것은 도독이 부총副摠(임경업)의 충성을 발휘한 서신에 사례하는 것이다 ’ 하고 친히 꿇어앉아 언덕 위에 올려놓고 갔습니다. 한인漢人의 말은 자고로 허탄하여 믿을 것이 못되는데 지금 청인淸人이 강건너 변경에 있으면서 한인의 선박이 내왕하는 것을 살펴 바라보고 있는지라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사세가 난처합니다. 청컨대 묘당廟堂(의정부)으로 하여금 그 답통答通의 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지시하여 주게 하소서 ” 하였다. 이에 비변사備邊司에서 회계回啓하기를 “ 지금 권칙 등이 문답한 장계狀啓를 보건대 그 말한 것이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임경업이 이미 그 문서를 받았으니 전혀 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경업으로 하여금 몰래 가서 만나보고 인하여 예물 단자禮物單子를 주고 사례하는 뜻을 표하며 답답하고 연민되는 처지를 진술하는 한편 애당초 구원병으로 돕는 것을 불허한 연유를 말하여 본국의 사정을 밝히게 한다면 혹시 도독의 마음을 다소라도 위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하였다. 이에 비답批答하기를 “ 청인이 지금 바야흐로 서쪽 중국을 범하므로 도독이 이처럼 졸렬한 꾀를 내 뒤에서 나꿔채는 계책을 쓰는 것이나 그대들 말로 헤아려 보건대 이는 별로 다른 정상이 없다. 그러나 임경업이 가서 만나보는 것은 혹 무방할 듯하니 계사啓辭대로 시행하라 ” 하였다.

여기에서 의주부윤으로 나오는 임경업은 어떤 인물인가. 국헌공보다 나이는 5세가 연상으로 이때 45세이다. 자는 영백英伯, 호는 고송孤松으로 충주의 달천達川 출신이다. 광해군 10년, 1618년에 25세로 아우 사업嗣業과 함께 무과武科를 하여 함경도 갑산甲山으로 추방秋防을 나갔다가 소농보권관小農堡權管으로 부임하여 공을 세워 당상관 절충장군折衝將軍이 되었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반정공신 김류金瑬의 막하에 있다가 인조 2년, 1624년에 이괄李适의 난에 자진 출정해 정충신鄭忠信 휘하에서 유공하여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1등에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 전라도 낙안군수樂安郡守로 나가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에는 전라병사의 좌영장左營將이 되고 1630년에는 평양중군平壤中軍이 되어 여러 산성을 수축하였으며 청주목사淸州牧使가 되었다. 청천강淸川江 이남에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강화도와 남한산성을 쌓아 수도권 방어에 힘썼으나 청천강 이북 백성을 선동하여 청천강 이남 방어선 구축을 반대하는 운동을 사주하였다는 탄핵으로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633년 봄에 친상중 청북방어사淸北防禦使가 되고 안변부사安邊府使를 겸하면서 의주義州의 백마산성白馬山城을 수축하고 웅거하였다. 이때 후금군과 내통하여 명나라를 모반한 공유덕孔有德·경중명耿仲明군을 섬멸한 공으로 명황제에게서 금화金花와 총병摠兵 관직을 받아 임총병이란 이름이 중국에 널리 알려졌다. 부친의 탈상후 다시 의주부윤 겸 청북방어사가 되고 백마산성을 방어할 재정을 마련코자 조정에서 은 1천냥과 비단 100필을 받아 중국인과 무역하여 이윤을 축적하고 유민을 모아 12개처에 둔전屯田을 개설한 공으로 1635년에 가의대부嘉義大夫가 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한다는 탄핵으로 파직되고 다시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의 주장으로 1636년 의주부윤에 복직되어서는 압록강 건너 요동 땅의 송골산松鶻山과 봉황산鳳凰山에 봉화대를 설치하여 방비를 강화했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청군이 이같은 임경업의 백마산성을 피해 우회하여 서울로 진격해 들어왔으며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했다가 항복했다. 인조의 항복을 받은 청태종淸太宗은 조카 요퇴要魋에게 300정예기병로 귀국케 했는데 임경업은 의주에서 이 요퇴군을 섬멸하고 포로된 남녀 120여명과 말 60여필을 빼앗았다. 청은 명을 정복키 위한 전초로 가도椵島에 주둔한 명군을 치기 위해 1637년에 조선에 병력 동원을 요청하고 임경업은 수군장水軍將에 임명되었으나 선봉에 서는 것을 주저하고 일변 명의 도독 심세괴沈世魁와 내통하여 그들의 피해를 취소화해 주었다. 청나라의 거스름을 사 철산鐵山으로 유배되었다가 명나라를 치려는 청의 파병요청으로 다시 조방장助防將이 되어 300군사를 이끌고 심양瀋陽까지 가 임기응변으로 청을 돕고 돌아와 1638년 9월에 평안도 병마사·수군절도사 겸 안주목사安州牧使가 되었다.